

취약국가 짐바브웨에서의 경제사회 위기 전이 : 북한경제 연구에의 실험적 적용

신동민 외교부

논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사회 조건을 지닌 아프리카 취약국가에서의 위기 전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북한에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에 있어 유의미할 수 있다는 시각에 기초한다. 이러한 시각아래 2018년 8월부터 경제사회 위기가 표면화된 짐바브웨 사례를 기술해보았다. 최근 모두 역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짐바브웨와 북한은 낮은 경제자유도, 경제규모, 산업구조 및 무역형태 등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양국 모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각각 미국 및 미국과 유엔 제재 아래 있어 외환 확보 제약에 직면해있다. 2017년말 37년 무가베 독재 종언이후 표면화된 짐바브웨 상황은 정치변동, 물가상승, 외환시장 왜곡, 보건 위기, 사회인프라 붕괴가 상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기본 경제 조건의 왜곡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에서 짐바브웨에서 나타난 경제사회 분야 악순환 고리 형성 및 작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제어 : 짐바브웨, 북한, 경제, 취약국가, 코로나

I. 들어가며: 코로나 사태발 경제사회 위기 고조¹⁾

2020년 초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국제 정치 관점에서는 주변부(periphery), 경제적 시각에선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에 완전히 편입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아프리카 대륙도 코로나 사태의 타격을 피해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²⁾ 2019년 2.4% 성장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2020년에는 최대 -5.1%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구조적 차원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경제 주요 국가들의 실물 부문 충격에 따른 연쇄 효과에 기인한다. 더불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음과 같은 특성은 코로나 사태 파급의 증폭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 고용의 많은 부분이 일용직이나 비공식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로 사하라 이남에서만 2천~5천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에 처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 외화 수입의 많은 부분은 해외송금(diaspora fund)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세계 경제중심권의 경제활동 약화는 이들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 해외노동자들의 송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지구적 차원 수요 감소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외화 공급원인 관광분야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만 하더라도 150만여 개의 관광 관련 일자리가 코로나발 경제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1) 본고는 전적으로 저자 개인 연구이자 개인 견해에 기초함을 밝혀둔다.

2) 이하 1.1항에서 코로나 사태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 기술은 나이지리아 언론 『Punch』(2020/4/12) 보도를 참조하였음.

II. 연구 중점: 아프리카 국가를 통해 북한 들여다보기

1. 연구 중점과 주요 개념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위기는 세계 경제 및 아프리카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더불어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도 의미를 제공한다. 바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다. 갑자기 아프리카 국가에서 어떻게 북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이 비판에 대해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연구 중점이 될 것이다. 본고는 그 유의미성을 논의할 수 있는 이유로 아래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III장에서 상술하겠지만 북한과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사회 구조 간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경제 충격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떻게 파급되는지를 기술해보면, 유사한 충격이 북한에 발생할 경우 어떠한 경제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예측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또한, 북한에서 발생한 현상이 아프리카 국가 위기 전이 과정 속에서 나타났다면, 이를 북한 경제사회 현 상태를 추측해보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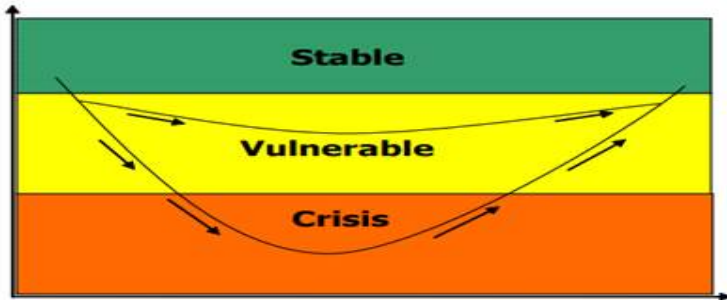
북한과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사회안전망이 안정적이지 않은 소위 취약국가(fragile state)로 분류된다.³⁾ 예컨대 북한은 2019년 기준 세계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 index) 순위에서 178개 대상국가 중 26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취약국가는 국가의 체질 자체가 전반적 관리역량이라 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작동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와는 상이하기에, 취약국가에서는 후자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각에서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를 바라볼 때 예측하기 어려운 일

3) 취약국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영국 개발청(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5, 6)은 “그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가로서의 핵심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가”로 그 특성을 설명한다.

들이 이런 류의 국가들에서는 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동류의 취약국가에서 발생한 위기 전이를 이른바 선행사례로서 살펴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 언급하는 위기(crisis)는 USAID의 워렌(Wade Warren 2006)의 논의를 인용, 한 국가가 외부 충격 등을 받았을 때, 안정 상태로 회복하는 탄력성을 상실한 상황으로 정의한다. 워렌은 이를 아래 <그림 1>과 같이 단순화하여 제시하였는데, 예컨대 한 국가가 정치적 혼란, 식량위기, 자연재해, 질병 등을 겪었을 때, 통제능력을 상실한다면 이를 위기에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워렌은 취약국가를 쉬이 위기상태로 빠져드는 국가로 정의한다.

<그림 1> 안정, 취약, 위기 상황 단계 간 관계



출처: (Warren 2006).

2. 북한 연구에의 ‘실험적’ 적용 가능성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사회과학적 기준에서 과학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전제를 충족해야 하며 연구도 엄밀하게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과학 비교연구에서 요구되는 엄밀성은 역설적으로 아프리카를 통해 북한 문제를 들여

다보는 것이 유의미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제공한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 경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코엔(Vincent Koen & Beom 2020, 6) 등은 북한이 1960년대 이후 정기적인 국가 경제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경제나 개발 상황을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이는 마치 수수께끼 같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코엔 등(2020, 6-7)은 『로동신문』과 북한 정권의 언급을 필두로, 북한 경제에 관련한 정보 획득 창구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한국은행이나 통일부와 같은 한국정부 자료이며, 둘째는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발간하는 무역통계 등이다. 셋째는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등 관련 국제기구 발간 자료이며, 넷째와 다섯째는 탈북자발 정보 및 『Daily NK』, 『NK News』 등 북한 전문 매체의 보도다.

물론 첫째 창구는 북한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등 거시 경제 전반과 관련한 통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의 추세를 읽는데 도움이 되나, 코엔 등(2020, 6-7)은 해당 통계가 한국과의 상대가격(relative price)에 기초한 추정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여타 자료도 추정치에 의존하거나 북한 경제사회의 특정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즉 북한 경제의 방향을 읽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이들 자료의 유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들 자료 통계만을 가지고 북한경제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과 유사하게 북한 경제 역시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위 비공식 부문이 크다는 점도 이러한 문제점을 배가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과 아프리카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엄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⁴⁾ 그러나 경제 충격이 북한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는 것은 정책

4) 비교 대상인 북한의 관련 공식 자료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와 북한 경제 문제간 엄밀한 비교연구를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하기 어려운 일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과 현실문제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엄밀한 과학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추정이나 주장의 영역에만 놓아두는 것은, 사회과학의 또 다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문제해결(problem-solving)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적 엄밀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속성상 유사점 있는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위기 전이과정 분석을 통해 북한 경제 상태를 추정해 보는, 접근 자체의 유의미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⁶⁾

정리하면, 본고는 유사한 경제사회적 조건을 지닌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위기 전이 현상에 대한 기술 및 분석을 북한에 ‘실험적(experimentally)’으로 적용해 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에 있어 ‘유의미’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이 바로 본고의 가설과 주장에 해당할 것이다.⁷⁾

3. 유사 연구 사례

사실 여타 유사 사례에 대한 분석을 북한 문제에 적용해 보는 연구 형태는 한국학술지인용(KCI)에 등재된 기존연구에서 다수 살펴볼 수 있다. 북한 경제 문제와 관련, 김병연(2005, 215-251)은 구소련, 동유럽, 중국의 경제개혁과 체제이행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 사례의 유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북한에서의 체제이행 발생 가능성을 논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동호(2004, 67-138) 등은 7.1 관리개선 조치 등

5) 영국 런던정경대(LSE)의 연구 관련 블로그(2016)는 사회과학의 강점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사회과학에는 문제 해결책 제시에의 기대도 있다고 소개한다. 즉 문제지향(problem-oriented) 사회과학은 문제해결 지향(solution-oriented) 사회과학과 상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 이는 비유하자면, MRI 및 CT 촬영을 하거나 수술을 해 북한 경제사회 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지만, 북한은 그러한 접근이 불가능한 환자라도 같으므로, 유사 환자의 임상 상태를 보면서 이 환자의 병의 원인이나 진행 상태를 추정해 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의술에서도 사용되는 방법이다.

7) 본고에서의 ‘유의미’는 아프리카 국가의 위기 전이 사례연구가 북한 문제에 분석에 최소한 함의 수준에서라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학의 유의성 검정(significance test)과 그 개념적 유사성에 착안하였다.

2000년대 초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의 개혁 조치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아래, 해당 시기 동유럽 국가의 개혁 조치를 검토한 후 이와 관련해 북한의 경제변화 양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영역을 확대한다면,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동일한 주제에 대해 타국 사례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조망을 시도한 연구가 많다. 문용일(2019, 335-356)은 남아공 비핵화 이행과정과 검증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북한 비핵화 추진시 예측되는 어려움과 고려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홍순식(2007, 533-573)은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분석, 이를 북한에 대한에 대한 제재와 비교하면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실효성을 논의하였다.

상기 연구들은 비교연구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과학적으로 사례 선택 과정을 포함해서 연구방법론상 엄밀한 비교를 수행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본고의 실험적 적용 수준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는 언급하였듯이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북한 문제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역점을 둔, 소위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아프리카 국가 사례 선택: 짐바브웨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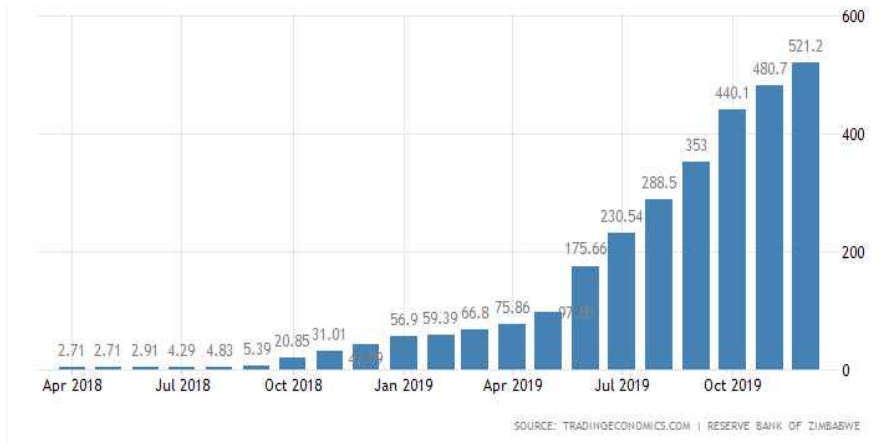
이제 자연스럽게 사례 선택의 문제가 떠오른다. 어떠한 아프리카 국가를 북한경제 연구 비교 사례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남부 아프리카에는 최근 10여년간 경제 문제가 누적되어 왔으며, 2018년 8월 경제위기가 표면화된 국가가 있다. 바로 짐바브웨(The Republic of Zimbabwe)다. 아프리카 남부 내륙국 짐바브웨는 서울에서 약 12,000km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한국민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국가 중 하나다. 고(故) 무가베(Robert Gabriel Mugabe) 및 2000년대 중후반 초 인플레이션으로 유

8) 본고 II.4장, III.1장 및 IV장의 짐바브웨에 대한 서술은 저자의 짐바브웨 경제 관련 연구인 신동민(2020, 출간 예정/ 영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국문으로 제작성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명한 짐바브웨 경제는 2009년 1월 다통화시스템(multiple currency system) 채택 후 2010년대 초반 안정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말 무가베 실각 후 새 정권이 들어선 2018년 8월 전 후부터 짐바브웨 경제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7년 짐바브웨의 물가상승률은 0~2%를 기록했으나, 2018.8월 경부터 물가가 급상승, 2019년 12월에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연례 물가상승률(YoY)이 약 520%에 육박했다. 경제성장률도 2017년 2.9%, 2018년 4%를 기록했으나 2019년 -6.5%을 기록했다(www. tradingeconomics.com). 일각에서는 2019년 경제성장률을 -12.8%로 추정하기도 한다(AFDB 2020). 도대체 이 시기 짐바브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경제 충격이 어떻게 증폭되었기에 이렇게 단기간에 경제가 퇴보했던 것일까?

<표 1> 짐바브웨 물가상승률(YoY) 추이 (2018.4월-2019.12월)



출처: www.tradingeconomics.com

III장에서 상술하겠지만, 짐바브웨와 북한은 여러 경제사회 조건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을 염두에 두고 짐바브웨는 경제사회 위기의 선행사례로서 연구해볼 만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단기간 위기가 증폭된 2018년 8월부터 2019년 말까지의 짐바브웨

경제사회 상황에 대한 기술을 통해, 코로나 사태 등 외부 충격이 작용할 경우 북한 경제에의 적용 가능한 함의를 도출해볼 것이다. 이와 관련, 우선 본고는 III장에서 북한과 짐바브웨 경제의 유사성을 분석해본다. IV장에서는 2018년 7월 이후 짐바브웨에서의 위기 고조 과정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V장에서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과 북한 경제의 위기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실험적 차원에서 제시해본다.

본고는 취약국가적 속성에 주목해 아프리카 국가와 북한의 경제사회적 유사성에 접근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짐바브웨에서의 현지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헌연구 차원을 넘어 관련 문제를 생생하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짐바브웨 현지 분위기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짐바브웨 정부의 발표 자료나 현지 언론 보도 등을 다수 참고하였다.⁹⁾ 이 점에서 본고는 북한 경제사회 연구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짐바브웨-북한 경제 비교

1. 짐바브웨 경제 환경

2018년 8월 이후 짐바브웨에서의 위기 전이에 대한 본격적 검토에 앞서, 짐바브웨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본 장에서는 짐바브웨의 기본 거시경제 환경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총인구 약 1천4백5십만의 짐바브웨의 GDP는 2017년 기준 228.1억 미 달러(이하 별도 언급이 없으면 달러는 미달러를 의미)로,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70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된다(www.tradingeconomics.com). 다만, 공식 기관 통계에 잡히지 않는, 60.6%에 이르는 GDP 대비 비공

9) 본고는 짐바브웨 경제위기 고조 과정에 대한 생생한 서술을 위해 현지 분위기를 전달하는 『The Herald』, 『News Day』, 『Daily News』, 『The Zimbabwe Mail』 등, 현지 언론을 참조하였다.

식 경제(informal economy) 규모가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짐바브웨의 실제 GDP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공식 경제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자영농 등 농업인구가 많고 공식적인 고용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기업(SMEs) 종사자가 많은 것이 제시되고 있다(The Zimbabwe Mail 2018). 짐바브웨의 경제성장률은 -9.9%를 기록한 2008년 이후 2010-2012년간 10% 이상 성장을 기록했다. 이후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2014년 3.9%, 2016년 2.9%, 2018년 4% 성장하였다(www.tradingeconomics.com).

한편, 통계를 고려할 때, 2018년 8월 경제 위기 촉발 배경이 되기도 하는 짐바브웨 경제 문제점은 2010년 경부터 축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구조적 왜곡’이라고 표현하였다. 2018년 10월 음틀리 누베(Mthuli Ncube 2018, 2) 짐바브웨 재정부 장관도 짐바브웨 경제의 문제점으로 과다 재정적자, 물가 상승압력, 인프라 부족 등과 더불어 짐바브웨가 직면한 위험과 도전으로 외환 및 현금 부족과 경상수지 적자를 지적하였다. 우선 2000년대 초 GDP의 대략 5% 수준이었던 짐바브웨 경상수지 적자는 2007-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며 2008년 GDP 대비 19.3%를 기록한 이래, 2009-2011년간 약 25%에서 30%에 육박하였다. 2012년에서 2016년간에도 적자폭은 GDP 대비 10~20%대를 기록하는 등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국영 언론 『ZBC』 (2019/03/26)는 2009년에서 2018년 6월간 누적 경상수지 적자액이 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한편, 2016년 짐바브웨 재정적자 규모 목표는 당초 4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실제 지출은 이의 약 2.5배인 14억 달러에 달했다(Reuters 2017/07/20). 짐바브웨의 GDP 대비 공공 부채(public debt) 규모는 2011-2015년간 40% 후반 및 50%대 초반을 유지하다 2016년 69.9%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은 적자폭이 82.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Indexmundi 2020a).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재정적자 확대에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짐에 따라 정치·경제적 지출 증대 유인이 있었던 것으

로 분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뭄에 대응해 짐바브웨 정부는 농업 보조금, 국영기업 손실보전 및 식량 수입에 자금을 투입하였다(Reuters 2017/07/20). 또한 한케(Steve Hanke 2019)는 2013년 야당과의 연정이 종료되고 다시 무가베의 ZANU-PF(Zimbabwe African National Union-Patriotic Front)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다시금 정부의 재정지출이 방만해졌다고 지적한다. 2016년은 무가베 대통령 건강 이상설 유포, 반정부 시위 발생 등 상황 속에서 집권당내 영부인 세력과 현 음난가그와(Emerson Mnangagwa) 대통령 세력간 후계권력 갈등이 증대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재정적자 증대와 화폐 및 외환시장과의 문제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는 국면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자 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짐바브웨 정부는 유동성을 필요로 했다(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7, 6). 문제는 2009년 1월 다통화시스템 도입 후 자국통화가 폐기된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었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경화(cash) 및 달러 유동성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에 짐바브웨 정부는 2016년 11월 통화증권(bond note)을 발행하기로 결정한다. 통화증권은 쉽게 말해서 짐바브웨 은행이 발행한, 달러와 1:1 비율로 태환을 보장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통화증권은 원래 수출 증대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통화 및 외환시장에 왜곡을 야기했다(Chigumira et al 2018, 25-26). 사람들이 미 달러화를 선호는 상황에서 짐바브웨 중앙은행에서 통화증권을 현금 부족을 이유로 계획보다 추가 발행함에 따라 통화증권의 실질가치가 더욱더 떨어졌던 것이다.

또한 소위 금융 전산망 거래인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eal-Time Gross Settlement System: RTGS) 거래 규모가 실물 화폐 보유량과 유리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공무원 급여 등이 RTGS로만 지불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모바일 머니와 유사한 전자화폐의 유통량이 늘어났다. 쉽게 말하면, 급여가 실물화폐가 아니라 은행 계좌상 ‘숫자’로만 지급된 것이다. 이에 원칙상 1:1인 RTGS와 실제 달러 유통량간의 비율이 깨져 버렸다. 달러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통화증권, RTGS, 전자화폐 등

소위 유사화폐(surrogate, pseudo currency: 이들 유사화폐를 통칭하여 RTGS로 언급) 등의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배가되었다. 자연스럽게 암시장이 성행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오데로(Walter Odero 2018, 4)는 2017년 기준, 현금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RTGS 거래량이 연간 3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왜곡 요건이 경제 전반에 축적되는 상황에서 짐바브웨 경제에 대한 외부 제약도 지속되었다. 그 제약은 바로 미국 등 서방의 제재다. 서방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 무가베 정부가 토지개혁(land reform)을 단행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은 짐바브웨에 제재를 부과하였다. 이 중 오늘날 짐바브웨 경제에 실질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양자제재다. 2001년 12월 미국 상하원은 ‘짐바브웨 민주주의 및 경제회복법’(Zimbabwe Democracy and Economic Recovery Act: ZIDERA)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짐바브웨에서 법치 회복,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토지 개혁, 문민정부의 군경 통제 등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모든 국제금융기구에서 짐바브웨 정부에 대해 신규 차관, 신용, 보증을 제공하거나 짐바브웨 정부 채무를 탕감하는 것에 대해 반대투표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US Embassy in Zimbabwe: Chingono 2010, 70).

2018년 8월 8일 미국은 ZIDERA 개정안에 서명하여 ZIDERA에 기초한 대 짐바브웨 제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3년 3월 7일 미국은 또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288호를 채택, “짐바브웨의 민주적 기구와 과정에 해를 끼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동하였다(US Department of Treasury 2013). 동 행정명령은 짐바브웨 정권 주요인사 약 8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목했는데, 행정명령에 따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이들을 특별지정(SDN) 목록에 등재하고 이들과 미국인 및 미국과 관계된 금융거래를 금지하였다. 미재무부는 2005년과 2008년 각각 행정명령 13391호, 13469호를 추가하면서 제재 대상 명단을 확대하였다.¹⁰⁾ 미 재무부는 2020년 3월에도 2018년 8월, 최소 6명이 대

선 관련 시위 시 발생한 유혈사태 및 야당 탄압 등에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짐바브웨 정부 인사 2인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다.

2. 짐바브웨와 북한 경제 유사성

상기 살펴본 짐바브웨 경제의 기본 경제 환경을 토대로, 짐바브웨와 북한간 경제사회 조건의 유사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유사성 분석은 짐바브웨에서 발생한 경제 충격과 그 파급 과정을 토대로 코로나 사태 등 여사한 충격이 북한에 가해질 경우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북한에서 발생가능한 상황을 예측해보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짐바브웨와 북한의 경제가 유사해야, 충격이 가해질 경우 유사한 위기와 위기의 전이 경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단,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북한 경제 자료 원천은 대다수 추정치인바, 전반적인 흐름 파악 차원의 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우선 거시경제 조건 측면에서 짐바브웨와 북한 경제의 크기는 유사하다. 2017년 기준 짐바브웨 인구는 1,443만, 북한은 2,554만명으로 추정(World Bank Group 2020)되며, GDP 규모는 각각 2017년 기준으로 짐바브웨는 220.4억 달러, 북한은 173.6억 달러 수준이다(www.tradingeconomics.com).

산업 부문에서도 양 자는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양 자 모두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짐바브웨 12%, 북한 22.5%, Indexmundi 2020b, 2020c) 주요 수출품도 농작물 및 광물 등 1차 산업 생산물에 치우쳐 있다. 예컨대 짐바브웨의 경우 보석, 담배, 광물 등이 수출의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World's Top Exports 2020), 북한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유엔 대북제재 등으로 2016년에 비해 55.7%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광물성 생산품 수출이 36.4%를 차지했던 것으로

10) 행정명령에 의거해서 재무부 SDN 목록에 제재 대상을 올리는 것은 현재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양자제재 방식과도 유사하다.

추정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8, 4). 또한 양자 모두 제조업 수준이 낮아 가공식품, 섬유 등 생필품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짐바브웨와 북한 모두 역내 주도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다. 짐바브웨의 최대 교역국은 남아공으로, 수입의 40%, 수출의 75%를 의존하고 있다(Tralac 2018). 북한의 경우 2018년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9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5년의 50%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Koen and Beom 2020, 24).

또한 하라레와 평양은 모두 외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III.1장에서 기술한대로 짐바브웨는 미국 양자제재 아래 놓여있다. 이 때문에 외환 거래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컨대 2019년 4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미국 행정명령상 특별지정목록에 등재된 짐바브웨인들의 거래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1천8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US Department of Treasury 2019). 통상 이런 조치가 부과되면 해당 국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금융거래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북한 역시도 오랜 기간 미국의 양자제재 아래 있어 외환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5년 6자회담 개최 시기 제기되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금융 분야 대북제재는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짐바브웨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사례와 유사하게 2018년 미국은 북한과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러시아 은행 1곳과 북한 관련 유령 회사 2곳,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기도 했다(US Department of Treasury 2018). 특히 2016년 3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거듭된 미사일, 핵실험으로 유엔은 안보리 결의를 누적적으로 채택하여 북한의 수출 제한 품목 및 제한량을 증대하였다

경상수지 적자 문제도 양국이 유사하다. III.1장에서 언급한대로 짐바브웨 경상수지 적자 누적액은 2009-2018년간 약 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의 경상수지 적자 폭도 2016년 8.9억 달러에서 2017년, 총 무역규모 55.5억 달러 규모에서 20.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으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8, 3), 2018

년에는 대중교역에서만 2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는 통계도 있다. 실제로 2018년 대중국 수출액은 2017년 대비 87.7% 감소한 단 2억 13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경제 2019/04/11). 이에 따라 양국의 외환보유고도 충분하지 않은데 예컨대 짐바브웨는 2016년 기준으로 단 3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으며(IMF 2017), 30~75억 달러로 평가되는 북한의 외환보유고도 감소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정형곤 외 2018, 51-52).

외환 및 관련된 화폐 유통 측면에서도 짐바브웨와 북한 간에는 공통점이 있다. 짐바브웨의 경우 1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사실상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경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에서도 공식화폐는 ‘원’이지만 시장에서는 위안화 등이 통용되고 있다. 튜더와 피어슨(Daniel Tudor and James Pearson 2017, 24-29)에 따르면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계기로 일반 주민들은 위안화나 다른 외국 화폐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외환 암시장도 성행하고 있는데 북한 원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또한 그들에 따르면 상점 등에서는 암시장 환율을 반영한 원화가격이 표기되어 있는 등 북한 원화가 이중 가치로 계산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외환 확보를 위해서 핸드폰 등 일부 물품 판매, 전기료 납부 등에 달러화를 통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Daily NK 2020/01/20). 이렇게 공식 환율과 괴리되어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암시장이 성행하고, 자국화폐로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의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짐바브웨와 북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양국 모두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이 주요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다. 짐바브웨의 경우 2018년 기준 해외노동자 송금액이 전체 GDP의 9.6%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Cotterill 2019/08/12). 북한의 경우 여러 통계가 있지만, 『로이터』 등은 미국 정부를 인용, 2019년 3월 보도 시점 이전 북한이 10만명 해외노동자를 통해 연간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Nichols 2019/03/30). 다만 2017년 12월 유엔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이 북한 노동

자 본국 송환을 의무화한 만큼 이 수치는 줄어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양 국가 모두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 세계평화기금의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 Index)에 따르면 세계 178개 국가 중 2019년 짐바브웨는 10위, 북한은 26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양국 모두 외부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짐바브웨의 경우 2019년 3월 사이클론 이다이(Idai) 및 남부아프리카 가뭄 등으로 식량 부족 상황이 악화되었다. 2020년 4월 현재 약 7백만명이 인도지원 필요상황에, 지방인구 4백3십만명은 식량 불안 상태에 노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UN OCHA 2020, 6). 북한 역시도 WFP 등에 따르면 2018년 11월-2019년 10월 간 국내 식량 생산은 약 420만톤인데 소비량은 580만톤으로 약 160만톤을 수입 등으로 충당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Koen and Beom 2020, 11).

상기 배경아래 짐바브웨와 북한 모두 최근 경제성장률이 하락세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양 국가 모두 북한의 2018년 -4.1%를 포함(한국은행 2019, 3), 2019년도에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단, 북한의 경우 『아시아프레스』의 보도(2020)에 의하면 2020년 4월 기준 쌀, 유가 등은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및 경제 제약 조건의 유사성을 넘어, 경제 시스템 측면에서도 짐바브웨와 북한 모두 국가의 시장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은, 사회주의 성향을 지닌 경제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1980년 독립이래 무가베 주도 짐바브웨 정부는 사회주의 정책을 유지했다. 독립 이래 지속된 군부에 기반을 둔 Zanu-PF 일당 독재 아래, 짐바브웨 정부는 국영기업, 자본, 가격 및 수입 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이에 따라 짐바브웨에서는 국가 개입과 사회주의적 관료제가 경제 발전의 저해요소로 지적되어 왔다(Hanke 2018). 실제, 미국 해리티지(Heritage Foundation 2020) 재단이 발표하는 2020년 경제자유화 지수에서, 북한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180위, 짐바브웨는 174위를 기록하였다. 다시 말하면, 북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못하겠지만, 짐바브웨 역시도, 시장 자유도가 높은 국가라고는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양 자 경제사회 조건의 차이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짐바브웨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유엔 제재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무역에는 상대적 제약이 적다. 또한 짐바브웨에서는 국영기업이 상당수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생산여부 및 생산량 등을 각 기업이 결정하고 있으나¹¹⁾ 북한은 원칙적으로 계획경제 체제다. 또한 북한은 중국이 사실상 정치경제적 후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짐바브웨 역시도 역내 경제 강국 남아공 및 남부 아프리카공동체(SADC)가 정치경제적으로 짐바브웨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세계경제규모 2위에 중국에 비견하기는 어렵다. <표 2>는 상기 설명한 짐바브웨와 북한간 경제 환경을 비교한 내용이다.

<표 2> 짐바브웨-북한 경제 비교. 단위 \$는 美달러

	짐바브웨 (짐)	북한 (북)
인구 (2018) *World Bank Group (2020)	1443만명	2554만명
GDP *tradingeconomics.com	2017년 220.4억\$	2017년 173.6억\$
경제 구조 *농업: Indexmundi (2020b, 2020c) 짐/ World's Top Exports (2020) 북/ KOTRA(2018)	(2017년 기준) 농업비중 : GDP 12% (2019년 기준) 보석류, 담배, 니켈, 철광석, 광물, 면화 등 1차생산품 약 90% 이상 생필품(정제유, 옥수수, 의약품 등) 수입의존	(2017년 기준) 농업 비중 : GDP 22.5% (2017년 기준) 광물성 생산품 수출 비중 36.4% (2016년 대비 55.7% 감소) 최대수입은 섬유류(21.2%) - 당류 및 설탕과자(618%), 제분 공업 생산품(181.5%) 등은 2016년 대비 높은 증가세
한 국가 무역의존도 *짐/ Tralac(2018) 북/ Koen(2020)	2017년 수출 75%, 수입 40% 남아공 의존	2018년 무역 95% 중국 의존
외환 확보 제약	미국 양자제재(ZIDERA, 행정명령)	UN제재 및 미국 등 양자제재

11) 그러나 정부의 시장 개입 수준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예컨대 2019년 4월 물가상승 상황과 관련해 2008년 단행된 바 있는 가격통제(price control) 정책 채택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경상수지 적자 * 짐 / IMF (2017) tradingeconomics.com 북/ KOTRA(2018), 『한 국 경 제』 (2018/4/11)	2013년 GDP의 18.2% 2014년 15.2%/ 2015년 10.7% -09-18년 약 누적액 200억\$	2016년 8.9억\$ (수출 28.2/ 수입 37.1) 2017년 20.1억\$ (수출 17.7/ 수입 37.8) - 2018년 대중 수출액 2억1300불 (2017년 대비 87.7% 감소)
외환보유고 *짐/ IMF(2017) 북/ 정형곤 외(2018)	2015년 3.39억\$ 2016년 3.1억\$	2016년 기준 30~75억\$ 추산
외환시스템	사실상 다통화 (유사화폐 및 달 러화 등) - 달러 선호 (Dollarization) 암시장 성행 - 공식환율과 시장환율간 괴리	사실상 다통화 - 시장에서 달러, 위안화 통용 암시장 성행 - 공식환율과 시장환율간 괴리
해외노동자 송금 *짐/ Cotterill(2019) 북/ Nichols(2019)	2018년 기준 19억불, GDP의 9.6%	2019년 이전 연간 10억달러 수준 추정
취약국가순위 *Fund for Peace(2020)	2019년 178개 국가 중 취약 국가 10위	25위
식량부족 *짐/ UN OCHA(2020) 북/ Koen(2020)	20.4월 지방인구 4백3십만명 식량 불안(food insecure)	2018.11-19.10월간 약 1백6십만톤 외부 총당 필요 평가 - 총 소비량의 27.5% 수준
경제 성장률 *짐/tradingeconomics.com 북/한국은행(2019)	2017년 2.9%, 2018년 4% 2019년 -6.5% (아프리카 개발은 행 -12.5%)	2016년 3.9%, 2017년 -3.5% 2018년 -4.1%
경제 자유화 지수 * Heritage Foundation(2020)	180개국중 174위	180위
물가 상승률 *짐/tradingeconomics.com 북/『아시아프레스』	2018년 하반기부터 급등 18.4월 2.71% (연례) 18.8월 4.83% 19.4월 75.86% 19.12월 521.2%	2020.4월 기준 유가, 쌀 등 비교적 안정세

IV. 2018-2019년 짐바브웨 경제: 위기의 악순환 고리

상기 설명한대로 2010년대 들어 짐바브웨에서는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가 누적되었다. 또한 만성적인 외환 부족 속에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는 등 대외 여건도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아래 군부 쿠데타에 의해 37년 무가베 독재가 종언되고, 그 주도세력을 기초로

2018년 8월 현 음난가그와 새정부가 들어서자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표면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본 장에서는 신정부 출범 후 2019년 하반기까지 짐바브웨의 경제사회 위기가 어떻게 증폭되어갔는지 그 과정을 기술해본다.

2018년 8월 출범한 음난가그와 정부의 서방과의 관계는 시작부터 경색되었다. 2018년 7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일으켰고 이에 군경이 발포해 6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미국은 발포 책임자를 양자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짐바브웨 정부 대응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Zulu 2019/08/02). 이런 배경아래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물가 상승의 도화선이 되었다. 신정부는 2018년 10월 중기 통화정책(Mid-Term Monetary Policy Statement)을 발표하였는데, 이 정책은 첫째, 시중 은행에서의 외환 계좌(FCA Nostro)와 RTGS 계좌를 분리, RTGS 계좌를 사실상 짐바브웨 현지 통화 전용으로 지정하며, 둘째, 전자화폐 거래세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미 암시장과 실제 거래에서 유리되기 시작한, 미 달러화와 RTGS간 1:1 교환 비율을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후자는 누적되는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News Day 2018a/10/03). 생산자들은 정부 정책에 바로 대응했다. 세금 인상분을 가격에 전가했으며, 더 큰 폭의 RTGS 가치 하락을 RTGS 수령을 거부하기 시작했다(News Day 2018b/10/03). 이에 따라 달러화를 확보하지 못한 현지 짐바브웨인들은 의약품 등과 같은 필수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졌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해 생산자들은 물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다. 그 결과 10월 정책 발표 후 시장에서는 물과 빵과 같은 기본품마저 시중 슈퍼마켓 매대에서 보이지 않는, 물품 부족현상이 목격되었다.

이러한 경제 불안 상황에서 9월경 콜레라가 발생했다. 재정 여력이 없는 정부 당국의 그간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사실상 방치는 콜레라 확산을 부추겼다. 최초 발생 후 3개월만인 11월 기준 10,202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55명이 사망했다(UNICEF 2018). 혼란을 거치며 2018년 12월 연례 물가 상승률은 40%를 상회하였다.

2019년 들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발단은 석유 가격이었다. 내륙국으로서,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짐바브웨에서는 석유 가격을 정부가 통제해왔다. 석유 가격은 달러화-RTGS 1:1 비율에 맞추어져 있었는데, RTGS의 실질가치가 폭락을 하니 정부가 이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1월 12일 RTGS 기준 석유 가격을, 단번에 2.5배 인상하였다. 석유가격 인상은 전반적 물품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 이러한 가파른 물가 인상에 직면하여 RTGS로 급여를 수령하는 짐바브웨인들의 임금은 이에 맞추어 상승하지 못했다. 자연히 시민들의 생활고와 불만은 가중되었고, 이에 시민들의 정치사회적 행동에 나서기에 이른다. 짐바브웨 노동조합(ZCTU) 등의 주도로 1월 중순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는 시위 진압을 위해 또 다시 군경을 투입하였다. 짐바브웨 인권 NGO 포럼(Zimbabwe Human Rights NGO Forum 2019)에 의하면 진압 과정에서 17명이 사망했고, 954명이 체포되었다. 서방은 또 다시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짐바브웨 정부의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가 사회정치적으로 전이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연재해가 짐바브웨를 강타했다. 사이클론 이다이(Idai)였다. 치수시설이 부족한 짐바브웨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는데, 한 번의 사이클론으로 27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2018년부터 지속된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가뭄과 금번 사이클론은 농업 비중이 큰 짐바브웨의 작황을 더욱 어렵게 했다.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한 짐바브웨 정부는 총 6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할 뿐이었다. WFP는 사이클론과 가뭄으로 짐바브웨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20약 5백5십만 명이 식량 위기(food insecurity)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UN News 2019/07/19). UN OCHA는 짐바브웨 정부의 세금인상 등에 따른 짐바브웨인들의 실질 구매력 저하는 식량위기 상황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였다(UN OCHA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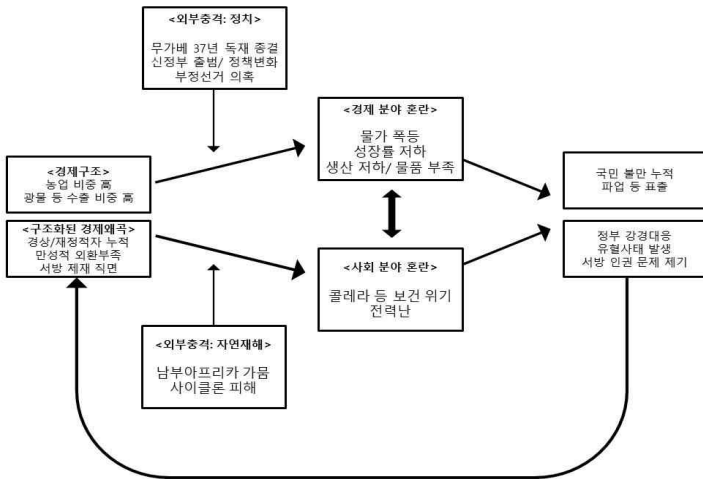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자연재해가 전력난 까지 야기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취약국가들은 불안정한 전력 사정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이들이 안정

적인 전력원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짐바브웨 역시도 북부 잠비아 국경에 위치한 카리바(Kariba) 댐, 즉 수력을 주 전력원으로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2019년 6월 카리바댐의 수위가 29%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발전량이 줄어들었는데, 악화되는 전력 사정에 짐바브웨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다. 그것은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짐바브웨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공식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제한송전을 시작하였다. 제한송전은 2019년 말까지 7~8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수도 하라레 지역에도 최소 하루 15시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짐바브웨 정부는 모잠비크나 남아공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려했으나, 부족한 외환 및 재정부족 여력 때문에 수입 시도는 좌절되었다. 전력난은 짐바브웨 경제사회적 취약성을 악화시켰다. 전력 부족으로 짐바브웨의 주 수출원인 광산업마저도 차질을 빚어 10% 이상 생산량이 줄어들었다(Imam 2019). 또한 전력난으로 정수장과 병원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자 보건 위기도 더욱 악화되었다(The Herald 2019/06/24). 대다수 국민들이 하루 15시간 이상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5~6개월 이상 방치된 사태는 짐바브웨의 취약국가로서의 속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취약국가의 정의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핵심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가”임을 상기할 때 말이다. 이러한 위기 상생을 겪으며 2019년 12월 기준, 짐바브웨의 연례 물가 상승률은 500%에 육박하였다.

상기 기술한 2018년 8월 이후 촉발된 짐바브웨 경제 위기는, 짐바브웨 경제사회 악순환 고리와 그 위기의 증폭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논의를 정리하면, 짐바브웨는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 누적 및 서방의 제재와 만성적 외환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및 정책 변동과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지자, 짐바브웨는 경제사회적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물가 폭등, 물품 부족 등 경제 분야에서의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보건 위기와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전력난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전력난은 생산 감소 등 경제난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경제난은 수출

부진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 문제를 악화시켰다. 그 결과 시민들은 파업 등에 나섰으나 정부 당국은 이를 군경을 동원해 강경진압 했다. 이 과정에서 서방의 우려는 가중되었으며, 이는 서방의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표 3>이 보여주듯이, 짐바브웨 경제사회적 구조적 제약 요건으로 환류되면서, 불안정 상황의 일상화가 고착된 것이다. 서장에서 언급한 위기의 정의와 같이 말이다.

<표 3> 짐바브웨 위기 전이 악순환 고리



V. 북한경제 연구에의 실험적 적용

2018 하반기부터 2019년 사이 짐바브웨에서 발견된 경제사회 분야 악순환 고리에 대한 기술과 분석은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유의미성을 제시하는가? 그 유의미성은 짐바브웨 경제사회 위기 악순환 고리의 시발점인, 경제구조와 구조화된 경제왜곡 측면에서 북한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짐바브웨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유엔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 이후 무역과 외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산물, 수산물, 농산품에 대한 수출 금지 폭도 유엔 제재가 추가 채택됨에 따라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 경제학자들은 북한에서 외환 부족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김병연 2020).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보건, 교통 등 기본적 사회 인프라 수준은 열악한 편이다. 이를 수치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WHO(2018)에 의하면 북한 내 후진국 감염병인 결핵 등의 전염수준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기본 보건 수준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평양과 하라레의 큰 차이점은 위기 전이 악순환 고리의 작동을 억제하는 요인이 북한에는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북중관계다. 중국은 짐바브웨의 남아공과는 달리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이다. 또한 북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사도 강한 편이다. 오픈 소스에 기초해서도 중국은 북한 무역 비중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공식 부문이나 불법 거래 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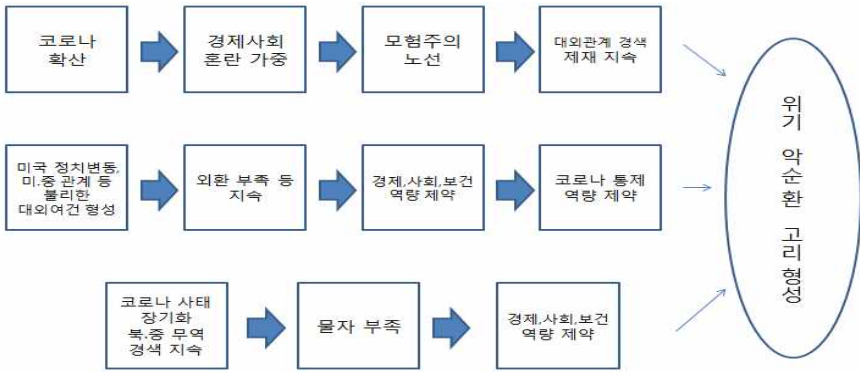
문제는 코로나 사태의 특수성이다. 코로나 사태가 중국 경제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 20년간 연간 평균 9% 성장을 기록한 중국경제가, 2020년 1/4분기에는 -6.8% 역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세계적 차원의 수요 감소로 불법, 합법 루트를 망라한 북한 주요 수출품인 광산물의 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설사 중국이 북한의 수출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받아주더라도 수출 단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 관련 중국의 대외 혐오도 표출되고 있다(Albert 2020).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북한내 코로나 문제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 사태가 사람간 접촉이 기초가 되는 북중간 무역 규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¹²⁾ 다시 말하면, 코로나 사태의 악화 수준에 따

12) 예컨대 『Bloomberg』(2020/05/13) 는 5월 코로나 사태 확산 우려로 북중 국경 인근에 위치한 길림성 등 주요 도시에 봉쇄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하였다.

라, 북한 경제사회 취약성에 기초한 악순환 고리 작동에의 억제 요인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경제구조의 및 처한 경제 환경의 유사성 등을 감안시 취약국가의 한 사례인 짐바브웨에서 나타난 위기 악순환 고리의 형성 요인을, 북한도 실질적·잠재적으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코로나 사태로 북한 자체, 북중관계 및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사회적 위축이 지속된다면, 상기 위기의 악순환 고리가 북한에서의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동 고리가 발생한다면 그 전개방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예상해볼 수 있다.

<표 4> 코로나 사태 관련 북한내 위기 악순환 고리 형성 시나리오



예컨대 우선 북한내 코로나 확산이 외부충격 요인으로 작동, 경제 및 사회 분야 북한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내 정세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강화하거나 관련국가와의 관계 경색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면, 외환 부족과 같은 북한 경제의 구조적 왜곡 악화 요인으로 악순환 될 것이다. 반대로 미국의 정치변동, 미중관계 추이에 따라 북한에 불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될 경우, 북한의 경제 여건 개선 가능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사회 대응 능력 약화로 야기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이 증대될 수 있다. 또

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북중무역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대중 수요 수입품인 소비재 부족 현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전반적인 물자 부족으로 보건 사회 분야 대응역량 약화도 야기될 수도 있다. <표 4>의 짐바브웨 위기 전이 악순환 고리상의 다양한 연결점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위기 시발점과 및 증폭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사회 악순환 고리의 작동 여부나 그 수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북한이 경제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현상을 통해 경제 상황을 간접 진단할 수 밖에 없다. 마치 수술할 수 없는 환자의 상태를 표출된 징후나 환부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짐바브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물가의 폭등, 물품 부족 현상 발생, 암시장 환율 폭등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를 북한 경제의 이상 징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아 농업 생산력이 저하되거나, 갑작스러운 전염병 류 환자 증대 등도 악순환 고리의 작동을 유추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짐바브웨 사례처럼 북한에서도 재정정책의 증대나 축소 등의 변동이 이례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역시도 이상 현상으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 당국은 2018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13년 3월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함께 추진한다는 병진노선을 ‘결속’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한바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 위축에 따라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을 때 ‘경제건설 총력’을 위해 짐바브웨의 재정적자 확대 사례처럼 정부지출을 늘리면서 대응할 수도 있다는 점도 추론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외자 도입 창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경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크다. 짐바브웨 사례처럼 자국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여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물가가 앙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2020년 예산집행 계획에 따르면, 국가예산지출이 전년에 비해 106%로 증가되며 경제건설에 총액의 47.8%를 배정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금속, 화학, 전력, 석탄 등 인민경제 분야 예산이 105%대에서 107%대로 늘어났는데,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2020)은 이

는 북한이 2020년에도 자재·원료의 국산화와 생산의 활성화 실현에 중점을 둔 내수경제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 정권이 대내외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제시하거나 모험주의 노선을 천명한다면 이 역시도 간접적 차원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위기 고조 가능성 요인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황일도(2020, 4-5, 18)는 북한이 정책을 변환할 때에는 대내외 메시지가 변화하거나 인적 교체가 수반되어 왔는데, 최근 전자는 발견되거나 후자의 경우는 그 변화 폭과 빈도가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컨대 북한이 2019년 4월 개최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등 각 종 국가 단위 회의에서 ‘자력갱생’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했다는 점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황일도는 또한 북한이 기술적 혁신을 통해 투입 대비 생산의 극대화 및 자원·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공장가동과 생산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내부조치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2019, 4). 제재 장기화로 북한은 각 기업소, 공장에 투입되는 재화와 자원의 양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2016년 유엔 제재 후 공식경제 영역에서 운용할 수 있는 외화의 양이 줄어든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VI. 결론

본고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사회적 조건을 지닌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위기 전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북한에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에 있어 ‘유의미’ 할 수 있다는 가정아래, 남부 아프리카 국가인 2018년 하반기 이후 짐바브웨의 경제사회 위기 고조 사례를 분석해보았다.

짐바브웨와 북한 경제는 인구 규모나 GDP 크기 등 거시경제 전반

조건이 유사하다. 또한 경제구조에 있어 농업비중이 높고, 광물 등 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짐바브웨는 남아공, 북한은 중국과 같이 역내 한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다. 또한 양 국가 모두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짐바브웨는 주로 미국의 양자제재를, 북한은 미국과 유엔 주도 제재에 직면해 있어 외환 확보에 제약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국가 모두 외환·통화 부분 왜곡에 직면해 있다. 양 국가 모두 사회경제 인프라가 열악한 취약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역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 8월 새 정부 취임이후 표면화된 짐바브웨의 경제 위기는, 짐바브웨 경제사회 분야 위기의 악순환 고리와 그 증폭 과정을 보여준다.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 누적 및 서방의 제재와 만성적 외환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분야 변동과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충격이 가해지자, 짐바브웨는 경제사회적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물가 폭등, 물품 부족 등 경제사회 제 분야에서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보건위기와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전력난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전력난은 생산 감소 등 경제난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경제난은 수출 부진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 문제를 악화시켰다. 그 결과 시민들이 파업 등에 나섰으나 정부는 균경을 동원해 강경진압 했다. 이는 서방의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등, 경제사회 구조적 제약 요건으로 환류했다.

그 경제사회 조건의 유사성상 북한에서도 짐바브웨에서 나타난 악순환의 고리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조화된 경제왜곡 측면에서 북한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짐바브웨와 큰 차이점으로 북한의 경우는 중국이 이러한 경제사회 악순환 고리의 작동 가능성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의 특수성이다. 코로나 사태는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아래, 짐바브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물가 폭등, 물품 부족 및 암시장 환율 폭등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를 북한 경제의 이상 징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2020.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와 함의.” 『동북아안보정세분석』 (4월 20일), 1-8.
- 김병연. “사회주의 경제개혁과 체제이행의 정치적 조건: 구소련, 동유럽, 중국의 경험과 북한의 이행 가능성.” 『비교경제연구』 제12권 2호, 215-251.
- . 2020. “중앙시평: 포스트 김정은?” 『중앙일보』 (4월 29일).
- 다니엘 튜더, 제임스 피어슨 (전병근 역). 2017. 『조선자본주의 공화국』. 서울: 비아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8. 『2017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서울: KOTRA.
- 문용일. 2019.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핵화 이행과 검증: 핵폐기 은닉 시도와 IAEA 검증, 그리고 비핵화 공표.” 『국방연구』 제62권 4호, 335-356.
- 신동민. 2020. “How Vulnerability Deepened in a Fragile State: Case Study of Zimbabwe from August 2018 Up to Date.”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60집, (출간 예정).
- 아시아프레스. 2020.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 <http://www.asiapress.org/korean/nk-korea-prices/> (최종검색일: 2020/5/1).
- 정형근, 김병연, 이석, 조남훈, 이정균, 김범환. 2018.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호, 1-262.
- 조동호, 김은영. 2004.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1960~70년대 동유럽 경제개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1권 1호, 67-138.
- 한국경제. 2019. “유엔 제재 영향에, 북중 교역량 반토막.” (4월 11일).
- 한국은행. 2019.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 홍순식. 2007.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리비아 사례와 비교.” 『동아연구』 제53호, 533-573.
- 황일도. 2020. “최근 북한의 정책노선 전환과정 특징: 메시지와 인적 변화의 양상 비교.”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 분석』 9호, 1-22.

- _____. 2019. “북한 경제발전담론의 이중구조화: 핵 협상에 대한 시사점.”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6호. 1-18.
- AFDB. 2020. “Zimbabwe Economic Outlook.” <https://www.afdb.org/en/countries/southern-africa/zimbabwe/zimbabwe-economic-outlook> (최종검색일: 2020/05/01).
- Albert, Eleanor. 2020. “African Countries Respond to Guangzhou’s Anti-Epidemic Measures.” <https://thediplomat.com/2020/04/african-countries-respond-to-guangzhous-anti-epidemic-measures/> (최종 검색일: 2020/05/01).
- Bloomberg. 2020. “China Seals Off Cities Near North Korea as New Clusters Grow.”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5-13/china-seals-off-cities-near-north-korea-as-new-clusters-grow?srnd=premium-asia> (최종검색일: 2020/05/13).
- Chigumira, Gibson, S. Abel, W. Matsika, and I. Gurure. 2018. An Assessment of Financial Market Distortions in Zimbabwe. Harare: Zimbabwe Economic Policy Analysis and Research Unit.
- Chingono, Heather. 2010. “Zimbabwe Sanctions: An Analysis of the “Lingo” Guiding the Perceptions of the Sanctioners and the Sanctionees.” *Af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4, No.2, 66-74.
- Cotterill, Joseph. 2019. “Cash Trails: Workers abroad offer lifeline for Zimbabwe’s economy.” *Financial Times* (Aug. 12).
- Daily NK. 2020. “Pyongyang Boosts State Collection of Electricity Fees.” <https://www.dailynk.com/english/pyongyang-boosts-state-collection-electricity-fees/> (최종검색일: 2020/05/01).
-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2005. *Why We Need to Work More Effectively in Fragile States*. London: DFID.
- Fund for Peace. 2020. *Fragile State Index Annual Report*. Washington D.C.: Fund for Peace.
- Hanke, Steve. 2019. “Zimbabwe’s Monetary Death Spiral.” *Forbes* (Jan. 16).

- _____. 2018. "Zimbabwe's Road to Serfdom." *Forbes* (Oct. 28).
- Heritage Foundation. 2020. "2020 Index of Economic Freedom."
- Imam, Patrick. 2019. "Where Is Zimbabwe Headin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ctober).
- Indexmundi. 2020a. "Zimbabwe Public Debt." https://www.indexmundi.com/zimbabwe/public_debt.html (최종검색일: 2020/05/01).
- _____. 2020b. "Zimbabwe Economy Profile 2019." https://www.indexmundi.com/zimbabwe/economy_profile.html (최종검색일: 2020/05/01).
- _____. 2020c. "Korea, North Economy Profile 2019." https://www.indexmundi.com/north_korea/economy_profile.html (최종검색일: 2020/05/01).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7. "Zimbabwe." *IMF Country Report*, No.17/196, 1-81.
- Koen, Vincent and Jinwoan Beom. 2020. "North Korea: The Last Transition Econom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607, 1-47.
- LSE. 2016. "We Need More Solution-Oriented Social Science: on Changing Our Frames of Reference and Tackling Big Social Problems." <https://blogs.lse.ac.uk> (최종검색일: 2020/05/01).
- Ncube, Mthuli. 2018. "Fiscal Measures for Reversing Fiscal Dis-equilibrium." Zimbabwe Government (Oct. 1).
- Nichols, Michelle. 2019. "Russia, China Sent Home More Than Half of North Korean Workers in 2018: UN Reports." Reuters (March 30).
- News Day. 2018a. "Prices Spike over New Tax Plan." (Oct. 3).
- _____. 2018b. "Monetary Policy Fuels Economic Strife: Business." (Oct. 3).
- Punch. 2020. "Seven Ways Coronavirus Is Affecting Nigeria, Other African Nations Economies."
- Odero, Walter. 2018. "2018 African Economic Outlook Country Note: Zimbabwe."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1-10.
- Reuters. 2017. "Zimbabwe Budget Deficit Rose to \$1.4 Billion in 2016" (July 20).

- The Herald. 2019. "ZESA Power Cuts Cost Hospitals." (June 24).
- The Zimbabwe Mail. 2018. "Zimbabwe Has World's Second Largest Informal Economy." (Oct. 27).
- Tralac. 2018. "South Africa's trade with Zimbabwe." [https:// www.tralac .org/resources/our-resources/12128-south-africa-s-trade-with -zimbabwe.html](https://www.tralac.org/resources/our-resources/12128-south-africa-s-trade-with-zimbabwe.html) (최종검색일: 2020/05/01).
- UN News. 2019. "Zimbabwe: Droughts Leave Millions Food Insecure, UN Food Agency Scales Up Assistance." (July, 19) <https://news.un.org/en/story/2019/07/1042881> (최종검색일: 2020/05/01).
- UN OCHA. 2020. Zimbabwe Humanitarian Response Plan 2020, New York: UN OCHA.
- _____. 2019. Zimbabwe: 2019-2020 Humanitarian Appeal Revision, New York: UN OCHA.
- UNICEF. 2018. "Zimbabwe Cholera Outbreak Report #4." (Nov. 23).
- US Embassy in Zimbabwe. "US Sanctions Policy: Facts and Myths." <https://zw.usembassy.gov/u-s-sanctions-policy-facts-myths/> (최종검색일: 2020/05/01).
- US Department of Treasury. 2019.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and Standard Chartered Bank." (Apr. 9).
- _____. 2018. "Press Release : Treasury Targets Russian Bank and Other Facilitators of North Korean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Violations." (Aug. 3).
- _____. 2013. "Zimbabwe Sanctions Program."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zimb.pdf> (최종검색일: 2020/05/01).
- Warren, Wade. 2006. "USAID's Approach to Fragile States Programming in Africa." Paper presented at the Advisory Committee on Voluntary Foreign Aid of the USAID, February 22, 2006.
- WHO. 2018.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at a Glance: DPRK."
- World Bank Group. 2020. "World Bank Open Data."

World's Top Exports. 2020. "Zimbabwe's Top 10 Exports." <http://www.worldstopexports.com/zimbabwes-top-10-exports/> (최종검색일: 2020/05/01).

ZBC. 2019. "Zim's 9yr Current Account Deficit Hit US\$20bn." <http://www.zbc.co.zw/zims-9yr-current-account-deficit-hit-us20bn/> (최종검색일: 2020/05/01).

Zimbabwe Human Rights NGO Forum. 2019. "On the Days of Darkness in Zimbabwe."

Zulu Blessing. 2019. "US Imposes Targeted Sanctions on Former Commander of Zimbabwe's Army 'Linked' to August Killings." *Voice of America* (Aug. 2),

www.tradingeconomics.com (최종검색일: 2020/05/01).

투고일 : 2020년 6월 24일 . 심사일 : 2020년 8월 2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9일
--

* 신동민은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에서 전쟁학(Ph.D in War Studies)을 전공하였고 현재 외교부 서기관으로 근무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제정치 행위자(Agency) 영향력 발휘 가능성 소고: 개인변수와 중견국 논의를 중심으로(2019), '유럽안보 협력기구(OSCE)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SBM) 검토(2018)', 'The Concept of Middle Power and the Case of the ROK(2012)' 등이 있다.

<Abstract>

Spread of Socio-Economic Crisis in the Republic of Zimbabwe As a Fragile State : Experimental Application to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Economy

SHIN, DONGMI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pplication of a study of an African country which has similar socio-economic nature to that of North Korea, as a fragile state, has significance for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economy.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describes economic crisis in the Republic of Zimbabwe which began in the second half of 2018.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Zimbabwe and North Korea have similarities in terms of economic size and industrial structure. The two fragile states, which have all recorded current account deficits in recent years, face restraints in ensuring foreign currency mainly due to the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United Na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crisis in Zimbabwe begun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demonstrated the formation of a vicious circle composed of the elements such as political upheaval, inflation, distortion in foreign currency market, public health crises and the collapse of infrastructure. Given the accumulated structural distortion in North Korean economy similar to those of Zimbabwe, the Covid-19 pandemic poses a probability of formation and occurrence of a socio-economic vicious circle, which appeared in Zimbabwe, in North Korea.

Keywords : Zimbabwe, North Korea, Economy, Fragile State, Covid-19